



김현중
(주)한화건설 사장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디벨로퍼

과학적인 공간 설계가 돋보이는 '꿈에그린' 아파트, 유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주)한화건설의 김현중 사장을 만나보았다. 에디터 김소진

Q.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집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인이 말하길 집은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이요, 삶을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던데, 이처럼 좋은 집이란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집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겠지요. 이와 함께 삶의 편리성을 최대한 확보해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공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이라면 유무형의 가치는 자연스레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Q. ㈜한화건설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고객 만족, 혁신 추구, 인재 양성. 한화건설이 추구하는 경영 핵심 가치입니다. 고객을 회사의 구성원으로 섬기고, 회사와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길 때 진정한 고객만족이 실현되며, 이러한 생각을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에 옮겨 칭찬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고객만족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서별·개인별 창조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문화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 사업 부문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고객과 하나 되는 기업, 고객과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함께 이루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진하겠습니다.

Q. 사장님께서 구상하시는 ㈜한화건설의 사업 방향은 무엇인지요.

A. 주택건축 부문 등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대와 신성장 동력의 창출 및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디벨로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화건설의 가장 큰 전략 기조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 부문을 성장의 동력으로 확충하고, 토목환경 및 플랜트 사업 비중을 더욱 확대해 각 분야의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 겁니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국내 10대 건설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 부문은 꿈에그린의 브랜드 파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시장 참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자 SOC 사업 등 기획 제안형 사업뿐 아니라 철도 및 교량 등의 사업 참여도 확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Q. 올해 주요 분양 계획 및 최근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올해는 72만 평 부지의 인천에코메트로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간 주도로서는 최초의 매머드급 도시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께가 무거운 한편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전체 72만 평 중 절반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고 꿈에그린 아파트 8000세대 등 총 1만 2000세대가 들어서는 한화꿈에그린윌드로 조성할 것입니다.

산과 바다, 사람이 어우러진 해양 생태도시, 하이 퀄리티(High Quality)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최적의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아 뉴질랜드 넬슨, 네덜란드 델프트 등 해외의 유명 생태도시와 견주어 손색이 없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3000세대 1차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차에 걸쳐 분양할 예정입니다.

Q. 해외 건설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 및 앞으로 ㈜한화건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택개발과 플랜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은 시카고에서 1차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미국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플랜트의 경우 지난 4월 사우디에 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 진입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화건설은 2010년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핵심 사업화하고 공공도급 시장과 민간 개발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구조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전 사업 부문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지속적이고 수익성 있는 고도성장을 이뤄 나가려고 합니다. ☺